

朝鮮時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疾病¹⁾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勳

Successive kings of Chosun period took hot spring-bath to heal their diseases

Kim Hoon

Time and places of hot spring-bath were diverse such as at succeeding to the throne, after abdication, during Crown Prince and etc. Generally, average staying time was about 20 days. Beside the healing purpose, hot spring-bath was taken to inspect the people's conditions, to reduce compulsory labor or tax, to carry out "Kwagoh", the old state examination or to console the people.

1. 들어가는 글

朝鮮時代 歷代 임금들은 모두 27위가 되는데, 17세에 비명에 간 端宗임금을 제외하더라도 평균수명이 약 48세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당대 최고의 醫療受惠를 받았던 임금들이 어떻게 이렇게 短命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도 朝鮮朝 역대 임금들도 결국 그 시대 구성원 중의 하나로서 일반백성의 수명을 크게 뛰어넘거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역대의 임금들이 과중한 政務에 시달렸든지, 또 최고책임자로서의 정신적 중압감과 압박감 등을 가짐으로써 短命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아 왔다. 일반적으로는 宮中에서 御

1) 본 논문은 2000년 2월 26일에 방영된 KBS 역사스페셜 “운천궁궐 온양행궁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의 자문에 응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을 정리·작성한 것임.

醫들로부터 湯劑나 針灸術 등으로 질병을 조리하고 치료하였는데, 고질적이고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었다. 즉, 政務를 정지하거나 祭祀을 지내기도 하였고, 避接을 한다든지, 궁중에 內佛堂을 지어 기도를 한다든지, 宗廟社稷과 名山大川에 기도하게 한다든지, 大赦免令을 내려 蠲유를 기원한다든지, 또는 드물지만 道敎的呪術의 방법까지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溫泉浴을 시행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本考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史料를 중심으로 朝鮮時代 歷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疾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溫泉行을 한 임금들

朝鮮時代 임금들 가운데 在位時에 溫泉浴을 거행한 임금들은 太祖, 定宗, 太宗, 世宗, 世祖, 顯宗, 肅宗, 英祖 등 모두 8位이며, 王世子시절 父王을 扈從하지 않고 혼자서 溫泉浴을 거행한 임금들은 光海君, 思悼世子 등이다²⁾. 따라서 후일 莊祖로 추존되는 思悼世子(莊獻世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임금들이 在位時나 退位時, 또는 세자시절에 溫泉浴을 거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임금들의 溫泉地로 이용되었던 곳은 黃海道 平山, 京畿道 伊川, 忠淸道 溫陽 등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초기의 임금들인 太祖, 定宗, 太宗 등은 거의 平山溫泉을 이용하였고, 世宗 이후의 임금들은 주로 溫陽溫泉을 이용하였다.

溫陽溫泉을 제일 처음 이용한 임금은 世宗으로³⁾ 나이 37세인 재위 15년에 처음으로 溫陽에 거행하였는데 이후 2차례 더 溫陽溫泉을 이용하였다. 世宗 이후에는 世祖, 顯宗, 肅宗, 英祖 등이 在位時에 溫陽溫泉을 이용하였고, 세자시절의 光海君, 思悼世子 등이 溫陽에 溫泉浴을 하였다.

따라서 朝鮮時代 歷代 임금들, 즉 世宗부터 思悼世子까지 모두 7位の 임금들이 주로 溫陽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한 것을 알 수 있다⁴⁾.

1. 太祖의 溫泉行

2) 文宗도 王世子 시절에 세 차례 父王인 世宗을 따라 溫陽溫泉에 가기도 하였다.

3) 記錄上 분명하게 溫陽溫泉을 이용했던 최초의 임금은 世宗이 된다. 그러나 太祖가 그 이전에 溫陽溫泉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太祖 5년 3월의 기록에는 忠淸道 溫泉으로 행차한 내용이 나오는데, 地名을 수록해 놓고 있지 않아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溫陽地域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朝鮮朝 역대 임금들 가운데 최초로 溫陽溫泉을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4) 왕세자 시절에 부왕인 世宗을 扈從하여 溫陽溫泉에 행차한 文宗을 포함하면 모두 8위가 된다.

太祖는 재위기간동안 모두 6차례 溫泉行을 했는데, 1년 8월, 2년 4월, 4년 3월에 각기 平州온천을 이용하였고, 5년 3월에는 충청도에 가서 온천욕을 하였으며, 6년 3월, 7년 3월에도 각각 平州온천에 거동하였다.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모두 4차례 溫泉浴을 거행하였는데, 定宗 1년 4월과 太宗 1년 9월, 5년 9월, 6년 9월에 다시 平州온천에 거동하였다. 따라서 도합 10차례 溫泉行을 한 것인데, 5년 3월에 충청도의 온천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平州온천을 이용하였다.太祖 5년 3월에 이용한 忠淸道 溫泉은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히 기록하여 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당시에 溫泉을 떠나서 寧州에 머물렀다고 하였는데, 寧州는 지금의 天安이 되기 때문에 溫泉地는 지금의 溫陽地域이 된다고 생각된다.

①太祖 1년 8월:

太祖 1년 8월 21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거동함.

1년 8월 23일 - 임금의 행차가 溫泉에 이르렀다.

1년 9월 8일 -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들이 宣義門 밖에서 맞이함.

②太祖 2년 4월

太祖 2년 4월 11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거동함.

2년 4월 25일 - 임금이 溫泉으로부터 돌아왔다.

③太祖 4년 3월

太祖 4년 3월 21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거동함.

4년 4월 1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도착함.

4년 4월 20일 - 임금이 溫泉에서 돌아왔다.

④太祖 5년 3월

太祖 5년 3월 10일 - 諫官과 臺諫의 중지 상소에도 불구하고 병 치료 위해 忠淸道 溫泉으로
행차함.

5년 3월 16일 - 임금이 溫泉에 도착함.

5년 4월 1일 - 車駕가 溫泉을 출발하여 寧州에 머물렀다.

5년 4월 7일 - 임금이 溫泉에서 돌아왔다.

⑤太祖 6년 3월

太祖 6년 3월 18일 - 임금이 溫泉에 있었는데 고아들을 만나 보고 옷과 밥을 주게 하다.

6년 3월 20일 - 임금이 天神山에서 사냥하고 平州 땅에 머물렀다.

6년 3월 27일 - 임금이 溫泉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⑥太祖 7년 3월

太祖 7년 2월 29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가기 때문에 宗廟에 고하였다.

7년 3월 13일 - 임금이 溫泉에 이르렀다.

7년 3월 21일 - 임금이 溫泉을 떠나서 天神寺에 이르렀다.

7년 3월 26일 - 溫泉에서 돌아왔다.

⑦定宗 1년 4월

定宗 1년 4월 1일 - 太上王이 平州溫泉에 갔다.

1년 4월 16일 - 太上王이 溫泉에서 돌아왔다.

⑧太宗 1년 9월

太宗 1년 9월 27일 - 太上王이 平州溫泉에 감.

1년 10월 4일 - 宦官을 보내 平州溫泉에 있는 太上王을 문안하게 함.

1년 10월 8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갔다.

1년 10월 10일 - 임금이 溫泉에 이르러 太上王을 뵈고 문안함.

⑨太宗 5년 9월

太宗 5년 9월 7일 - 太上王이 平州溫泉에 가니, 임금이 전송함.

⑩太宗 6년 9월

太宗 6년 9월 20일 - 太上王이 平州溫泉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전송함.

2. 定宗의 溫泉行

재위 2년 10월에 平州溫泉에 거동한 기록이 한번 나오는데, 疾病의 내용은 짐작할 수 없고 後日 司諫院으로 바뀐 郎舍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치료를 들어 거행한 사실이 나온다. 또한 退位한 이후인 太宗 11년 9월에 忠淸道 溫陽溫泉에 가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衿州 安養寺에 목욕하러 간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는 溫泉이 없어 단순히 목욕한 것으로 생각된다.

定宗 2년 10월 11일 - 平州溫泉에 거동하다가 金郊에 머물렀다.

2년 10월 15일 - 溫泉에서 海州로 거동하려 하니, 門下府에서 말리었으나 윤택하지 아니 함.

2년 10월 15일 - 임금이 海州에서 환궁하여 太上殿에 나아감.

太宗 11년 9월 12일 - 上王이 忠淸道 溫水溫泉에 가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를 알고 衿州 安養寺⁵⁾로 목욕하러 감⁶⁾.

5) 衿州는 太宗 13년 10월에 衿川으로 改稱되었다. 衿川은 서울시 衿川區, 九老區와 京畿道 安養市, 光明市 지역의 일원이다. 安養寺는 서울시 冠岳區 新林洞과 경기도 安養市 石水洞과의 경계에 위치한 三聖山에 있는 절 이름.

6) 『韓國醫學史』에서는 “太宗 11년 9월에는 忠淸道溫泉, 同18년 3월에는 平山溫泉, 그 해 7월에는 伊川溫泉에 浴하였다.”라고 하였다.(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81, p. 240.) 그러나 太宗 11년 9월의 기록은 太宗과 관련한 記事가 아니고 당시의 上王이었던 定宗이 同年 9월 7일에 忠淸道溫泉에 가고자 한 뜻을 말한 것이며, 이것도 반대에 부딪혀 거행하지 못하고 9월 12일에 衿州로 가서 목욕하였다. 또한 同18년 3월에 平山溫泉에 갔다고 하였는데 3월이 아니라 4월이며, 그해 7월에 伊川溫泉에서 沐浴하였다고 하였는데 伊川에서 溫泉浴할 것을 논의만 한 것이지 실제로 거행하지는 못했다.

3. 太宗의 溫泉行

太宗은 在位時에 모두 네 차례 溫泉行을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太宗 1년 10월에 平州溫泉에 거동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太上王인 太祖가 平州溫泉에 거동하자 임금이 행차한 것으로 太宗 자신이 직접 溫泉浴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太宗 18년 4월에는 風疾을 치료하기 위해 平山에 거동하였으나 비가 오고 농사에 피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음날 바로 환궁한다. 따라서 在位時 실제로 溫泉浴을 거행했던 것은 太宗 2년 9월과 13년 2월의 두 차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退位以後에도 太宗은 두 차례에 걸쳐 溫泉行을 시도하였다. 世宗 1년 4월에 平山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시행하였는데 世宗이 함께 하였으며, 世宗 3년 4월에는 太宗이 伊川溫泉에 거동하자 世宗이 호종하였으나 가는 길이 좁고 물이 험하다는 보고를 듣고 중지하여 환궁한 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太宗은 在位時 2번, 退位時 1번에 걸쳐 도합 3차례 실제로 溫泉浴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모두 平山溫泉⁷⁾을 이용하였다.

①太宗 1년 10월

太宗 1년 10월 8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갔다.

1년 10월 10일 - 임금이 온천에 이르러 太上王을 뵙고, 衣襟를 드리고 獻壽하다.

1년 10월 13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서 환궁하는 길에 말에 채인 사람에게 淸心圓을 내려 주다.

②太宗 2년 9월

太宗 2년 9월 26일 - 平州溫泉에 행차함.

2년 9월 29일 - 임금이 平州에서 돌아왔다.

③太宗 13년 2월

太宗 13년 2월 4일 - 임금이 豐海道로 가다가 廣灘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海州로 거동하고자 하여 平峯삼아 平州溫泉에서 목욕한다고 함. 世子 등이 시종함.

13년 2월 8일 - 임금이 平州溫泉에 머물면서 海州에 가서 사냥하겠다고 하다.

13년 2월 9일 - 車駕가 平州에 머물렀다.

13년 2월 28일 - 海州를 거쳐 환궁하다.

④太宗 18년 4월

太宗 18년 4월 8일 - 임금이 平山溫泉에 거동하였다.

18년 4월 9일 - 비가 와서 군사들이 威容을 잃을 것이고, 농삿달을 당해 폐단이 있으므로 환궁하겠다고 함.

⑤世宗 1년 4월

世宗 1년 4월 26일 - 上王이 平山에 당도하여 온천에 목욕하다.

7) 平山은 지금의 黃海道 平山郡을 말하는 것으로 高麗시대 초기에 平州라 불렸으나 朝鮮시대 들어와 太宗 13년(1314)에 平山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므로 平州나 平山은 같은 곳이다.

1년 4월 27일 - 御駕가 온천에 머물렀다. 世宗이 5월 1일까지 함께 온천에 머무르다.

⑥世宗 3년 4월

世宗 3년 4월 18일 - 上王이 伊川溫泉에 거동하자 임금이 따라 나섰으나 가는 길이 좁고 물이 험하다는 보고를 듣고 중지하여 환궁함.

4. 世宗의 溫泉行

世宗은 在位時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溫泉浴을 거행하였다. 즉, 37세(15년)와 45세(23년) 때에 溫陽에서, 46세(24년)에 伊川에서, 47세(25년)에 다시 溫陽에 溫泉浴을 하여 자신의 질병치료를 피하기도 하였다⁸⁾. 그 가운데 45세 때(23/04/17)에 溫陽에서 목욕하고 난 후에 많은 효과를 보아 당시의 溫水縣⁹⁾을 溫陽郡으로 승격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로 보건대 지금의 溫陽이란 지명이 世宗의 溫泉浴으로 인해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48세인 세종 26년에는 溫泉은 아니지만 충청도 淸州 부근에 물맛이 胡椒 같다하여 ‘椒水’라 하는 곳에 2달간 목욕한 내용도 나온다. 아울러 世宗의 中宮인 昭憲王后 沈氏는 자신의 질병을 조리하기 위해 혼자서 약 1달간 溫陽溫泉을 이용한 기록도 나온다. 즉, 昭憲王后는 世宗 22년 3월 2일에 溫陽에 거동하여 同年 4월 6일 還宮하였는데, 당시에 風病을 앓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상당한 차도가 있자 목욕한 후에 관계자들에게 상을 내린 내용도 나타난다.

文宗도 父王인 世宗이 세 차례 溫陽溫泉에 거동할 때 扈從하여 함께 溫陽에 거동하였는데, 자신의 고질적인 皮膚病을 치료하기 위해 溫泉浴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①세종 15년 3월

世宗 15년 3월 25일 - 임금이 溫水縣 溫泉에 행차할 때 왕세자 등이 호종함.

15년 3월 30일 - 온정에 머무르다.

15년 4월 20일 - 兩宮이 환궁 길을 떠남.

②世宗 23년 3월

世宗 23년 3월 17일 - 왕, 왕비, 왕세자가 溫水縣에 거동.

23년 3월 20일 - 大駕가 온천 행궁에 도착.

23년 5월 2일 - 車駕가 行宮을 출발함.

③世宗 24년 3월

世宗 24년 3월 3일 - 中宮과 함께 이천에 거동

8) 『韓國醫學史』에서는 世宗이 脚痛을 치료하기 위해 黃海道 白川溫泉에 행차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p. 242.) 그러나 世宗 32년 1월 23일의 기록을 보면 白川溫泉의 거동을 중지하게 한 記事가 실려있다. 따라서 世宗은 白川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하지 않았다.

9) 溫水는 지금의 忠南 溫陽市를 말한다. 百濟 때에는 ‘湯井郡’이라 하였고, 高麗初에는 ‘溫水郡’이라 하였으며, 朝鮮時代에 들어와 太宗 16년에 ‘溫水縣’으로 바뀌고, 世宗 24년에 ‘溫陽郡’으로 승격되었다.

24년 3월 16일 - 兩殿이 온정에 이름

24년 4월 16일 -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온정을 출발.

④世宗 25년 3월

世宗 25년 3월 1일 - 임금이 왕비와 함께 溫陽溫泉에 거동하니, 왕세자 등이 호중함.

25년 3월 3일 - 행차가 溫泉에 이르렀다.

25년 4월 3일 - 車駕가 溫井을 출발함.

5. 世祖의 溫泉浴

세조는 48세인 재위 10년 3월과 49세인 11년 1월과 8월 그리고 52세로 죽기 몇 달 전인 14년 1월에 모두 4차례 溫陽에 거동하여 溫泉浴을 하였다. 다만 世祖 11년 1월에 世祖가 溫陽에 있어 溫泉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還宮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世祖 10년 3월

世祖 10년 3월 1일: 車駕가 溫陽의 行宮에 이르렀다.

10년 3월 18일: 車駕가 溫井을 출발함.

②世祖 11년 1월

世祖 11년 1월 4일: 溫陽에 行幸하여 머물렀다.

③世祖 11년 8월

世祖 11년 8월 17일: 임금이 中宮과 더불어 溫陽에 거동. 王世子가 隨駕함.

11년 8월 20일: 大駕가 溫陽湯井의 行宮에 이름.

11년 9월 10일: 임금이 中宮과 더불어 行宮을 출발하여 楓川에 이르렀다.

④世祖 14년 1월

世祖 14년 1월 27일: 임금이 中宮과 더불어 世子를 거느리고 溫陽으로 거동.

14년 1월 30일: 車駕가 저녁에 溫陽行宮에 이르렀다.

14년 3월 9일: 車駕가 돌아오다가 陽城의 所草平에 머물렀다.

6. 宣祖와 光海君의 溫泉浴

宣祖가 직접 溫泉行을 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宣祖 39년 5월에 溫陽의 溫泉水를 떠와 손가락을 담그기도 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宣祖 39년 5월 18일의 기록을 보면 먼저 임금이 손가락을 椒水(椒井藥水)에 담그고자 전교 하였으나 醫官들이 溫泉水에 담가 筋脈을 푸는 것이 더 효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험하기를 청한 내용이 나온다. 이후 溫泉水를 떠와 손가락을 담근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同月 23일의 기록에 溫泉水에 담근 후의 宣祖의 병증을 거론하고 있어 아마도 실제로 溫泉水를 길어와 손가락을 담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선조 26년 윤11월에는

왕세자(光海君)가 혼자서 溫陽온천에 거동한 기록이 나온다. 실록의 기록에는 광해군이 질병이 있고 아팠다고 나오는데, 병증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宣祖 25년 7월 9일 - 왕세자(光海君)가 伊川에 있었다.

25년 7월 27일 - 왕세자가 伊川에 있었다.

25년 7월 28일 - 왕세자가 新溪에 있었다.

7. 顯宗의 溫泉浴

顯宗은 나이 21세인 즉위 2년 윤7월에 偷鍼瘡(눈다래끼)이 생겨 仁慶宮 안의 椒井에서 목욕한 기록이 나온다. 기록상 顯宗은 나이 25세부터 29세까지 5년에 걸쳐 다섯 번 溫陽온천에 거동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안질과 함께 濕瘡(부스럼, 종기)증세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溫泉浴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濕瘡과 眼疾증세는 溫泉浴 이후에 한때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였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던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 치료는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顯宗 2년 윤7월 17일 - 上의 眼胞에 偷鍼瘡이 생겨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는데, 上이 仁慶宮 안의 椒井에 목욕하기로 결정함.

2년 윤7월 22일 - 上이 仁慶宮에 거동하여 椒井에서 목욕하였는데, 5일 동안에 네 차례나 거동하였다.

① 顯宗 6년 4월

顯宗 6년 4월 17일 - 上이 溫陽溫泉에 거동하였다.

4월 21일 - 御駕가 溫泉에 도착함.

5월 12일 - 上이 溫泉行宮에서 출발하였다.

② 顯宗 7년 3월

顯宗 7년 3월 26일 - 상이 慈殿을 모시고 溫陽의 湯泉에 거동함.

3월 30일 - 溫陽의 行宮에 도착함.

4월 27일 - 上이 먼전 行宮을 출발함.

③ 顯宗 8년 4월

顯宗 8년 4월 11일 - 上이 大妃를 모시고 溫陽溫泉으로 거동함.

4월 15일 - 上이 溫陽의 行宮에 도착함.

윤4월 11일 - 수레를 돌려 稷山에 머물다.

④ 顯宗 9년 8월

顯宗 9년 8월 16일 - 上이 溫泉에 거동하여 저녁에 果川行宮에 머물렀다.

8월 20일 - 溫泉行宮에 머물렀다.

8월 30일까지 - 溫陽의 行宮에 있었다.

9월 4일 - 上이 行宮을 출발함.

⑤顯宗 10년 3월

顯宗 10년 3월 15일 - 上이 王大妃를 받들고 溫陽溫泉에 거동하였는데 中宮도 配行함.

3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 溫陽의 行宮에 있었다.

4월 16일 - 上이 王大妃를 모시고 溫泉으로부터 御駕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8. 肅宗의 溫泉浴

숙종은 57세인 재위 43년 3월에 溫陽온천에 거동하여 溫泉浴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호소하고 있는 주 증상은 눈이 어둡고 어지러운 眼疾 증세이며 아울러 다리가 서리는 증상도 호소한다. 그러나 溫泉浴 이후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해지자 서울로 돌아온 기록이 나온다.

肅宗 43년 3월 3일 - 임금이 溫陽으로 거동함.

3월 8일 - 溫泉行宮에 이름.

3월 27일 - 溫陽을 떠남.

9. 英祖와 思悼世子の 溫泉浴

英祖는 83세에 승하하여 朝鮮朝 역대 제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임금이였다. 英祖는 나이 56세인 즉위 25년에 피부 가려움 증세로 溫陽온천의 물을 서울까지 2번 길어다 목욕하기도 하였다. 다음해 가을(26년, 57세)에는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溫陽온천에 거동하기도 하였다.

36년 7월에는 왕세자(思悼世子)가 다리에 생긴 濕瘡(종기,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 溫陽에 약 열흘정도 머물며 목욕한 기록이 나온다. 목욕 후에 濕瘡이 약간 차도가 있다고 하였으나 還宮이후에도 藥房에서 진찰을 한 기록이 계속해서 보인다. 아마도 근본적 치료는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英祖 25년 10월 29일 - 임금이 가려움 증세가 가시지 아니하여 여러 신하들이 溫泉水로 薰洗할 것을 청하자 溫陽溫泉의 물을 두 번 길어 올 것을 허락하다.

11월 3일 - 임금이 溫泉水로 薰洗하고 肅考의 溫陽行幸한 일을 추억하여 溫泉感懷詩를 지었다.

英祖 26년 9월 12일 - 임금이 溫泉에 거동하여 果川縣에서 목었다.

9월 16일 - 大駕가 溫陽行宮에 머물렀다.

9월 24일 - 大駕가 溫陽을 떠나 稷山에 머물렀다.

英祖 36년 7월 18일 - 왕세자(思悼世子)가 溫陽에 행차함.

7월 22일 - 왕세자가 溫泉行宮에 도착하였다.

8월 1일 - 왕세자가 온천 행궁에서 출발하여 稷山에 도착함.

<朝鮮時代 역대 임금들의 溫泉行>

역대임금	溫泉行의 내용
太祖	10차례 온천욕함. 9번은 黃海道 平山溫泉을, 1번은 溫陽溫泉을 이용함. (재위시 6번, 퇴위시 4번.)
定宗	재위시 平山溫泉에 1번 거행.
太宗	平山溫泉에 3번 거행. (재위시 2번, 퇴위시 1번.)
世宗	溫陽에 3번, 伊川에 1번, 모두 4차례 溫泉浴. 忠淸道 淸州부근의 椒水에도 목욕.
世祖	재위시 4차례 溫陽溫泉에 거행.
光海君	왕세자 신분으로 혼자서 溫陽溫泉에 거동.
顯宗	재위시 5차례 溫陽溫泉에 거행.
肅宗	재위시 1차례 溫陽溫泉에 거행.
英祖	재위시 1차례 溫陽溫泉에 거행.
思悼世子	왕세자 신분으로 혼자서 溫陽溫泉에 거동.

이상과 같이 朝鮮時代 역대 임금들은 자신의 고질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溫泉浴을 시행하였다. 溫泉浴을 한 임금들은 왕세자 시절의 文宗까지 포함하면 모두 11위가 되는데, 그 가운데 太祖가 10번으로 가장 빈번한 溫泉行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朝鮮初期의 太祖, 定宗, 太宗 등은 주로 黃海道 平山溫泉을 이용하였고, 世宗 이후의 임금들은 거의가 溫陽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하였다. 溫陽溫泉에 머물며 溫泉浴을 한 기간을 헤아려보면 평균 약 20일 정도가 되는데, 都城에서 溫陽까지 보통 3일 정도가 걸리므로 溫泉浴을 하기 위해 거의 1달을 소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出發에서 還宮까지 1달을 훨씬 넘게 걸려 행차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溫泉浴을 하는 목적 외에 여러 인근 지역을 돌며 임금이 民政을 視察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溫泉行은 관련지역의 백성들에게 많은 불편과 폐해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인근 고을에 특별한 조치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즉, 온천지역의 노인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곡식이나 술과 고기를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賦役이나 稅金을 減免해주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溫陽에서 특별히 科擧를 열어 온천지역의 선비들을 배려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溫泉行이 일차적으로 역대 임금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시도한 것이지만, 아울러 與民同樂하고자 하는 朝鮮朝 爲民思想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III. 온천행 임금들의 질병¹⁰⁾

1. 太祖의 疾病

太祖는 7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는데, 83세까지 생존한 英祖를 제외하면 가장 장수한 임금이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太祖는 在位時에 6차례, 退位時에 4차례에 걸쳐 주로 平山溫泉을 이용하였는데, ‘風疾’을 호소하며 溫泉浴을 거행하였다. ‘風疾’은 단순히 감기증상(外風)을 의미할 때도 있고 중풍질환(內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太祖의 溫泉浴의 원인이 되었던 ‘風疾’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太祖는 60세를 전후로 消渴病(糖尿病)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망의 직접적 원인도 中風疾患으로 추정된다.

2. 定宗의 疾病

定宗은 63세로 승하하였는데, 비교적 病弱했고 상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不眠症에 시달렸던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在位時 平山溫泉에 거행하여 溫泉浴하였는데, 질병내용을 기술해 놓고 있지 않아 어떤 증세로 溫泉浴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없다.

3. 太宗의 疾病

太宗은 56세로 승하하였는데, 實錄의 기록을 보면 중기, 風疾, 痢疾, 肩臂痛, 팔이 시리고 아픈 것, 목이 빠근한 것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太宗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在位時 2번, 退位時 1번에 걸쳐 平山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하였다. 溫泉浴의 원인이 되었던 병증을 살펴보면, 太宗 2년 9월 19일에 溫泉行을 반대하는 司諫院의 상소에 답해 임금이 말하길 “내가 지금 36세인데, 그전에는 瘡腫의 병이라고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기가 열 번이나 났다. 醫者 楊弘達에게 물으니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외출하지 아니하여, 기운이 막혀 그런 것이니 湯浴해야 된다’고 하였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太宗 18년 7월 19일과 世宗 1년 2월 7일의 기록에 太宗이 風病이 있어 이따금 시리고 아픈데 藥餌의 효험이 없으니 溫泉浴할 것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이로 보건대 太宗은 **중기나 風疾증상** 등을 호소하여 온천욕을 시행한 것을 알 수가 있다. 太宗에 있어 風疾증상은 감기나 中風질환은 아닌 것 같고, 肩臂痛과 함께 歷節風(류마티즘성 관절염)증세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成宗 이전의 임금들에 관한 질병은 拙著,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를 참조할 것.(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0, No. 2.)

4. 世宗의 疾病

世宗은 54세로 승하하였는데, 肉食을 좋아하고 살이 썩 체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많은 병증, 즉 風病, 消渴病, 痢疾, 眼疾, 腫氣, 頭痛, 腰痛, 浮腫, 淋疾, 咳嗽 등등의 다양한 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眼疾인데, 35세를 전후로 앓기 시작하여 42세 무렵부터는 악화가 되어 시력이 매우 떨어지기도 하였다. 실록의 기록에서는 책을 밤낮으로 놓지 않아 眼疾을 얻게되었다고 기록하고도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 白內障이나 綠內障 정도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의 眼疾은 기질적인 병변보다는 30세 전후로 앓기 시작한 消渴病(糖尿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糖尿病은 세종에 있어 고질적인 것으로 이것이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세를 나타냈고 그 가운데 眼疾의 고통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은 眼疾의 인한 고통을 주로 호소하면서 溫泉浴을 시행하였다.

5. 世祖의 疾病

世祖는 52세로 승하하였는데, 민간에서 흔히 극심한 皮膚病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피부병이 癩病(문둥병)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지만 實錄의 기록에는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實錄의 기록에는 대부분 “上不豫”라 하여 단순히 편찮았다는 정도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世祖는 在位時에 모두 4차례에 걸쳐 溫陽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하였는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 世祖가 溫泉浴을 했었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 世祖의 疾病記錄 가운데 病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은 世祖 10년 4월 16일에 溫泉浴과 관련하여 風濕病을 거론하는 부분과, 世祖 12년 10월 2일에 胸腹痛을 치료하기 위해 玄胡索을 가미한 七氣湯을 복용한 기록 정도만 나타난다.

이 가운데 ‘風濕病’은 風과 濕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病症을 총칭하는 病名으로 일반적으로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쭈시고 아픈 관절증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溫泉浴과 관련하여 世祖 자신이 말하고 있는 ‘風濕病’이 바로 피부질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역대 임금들이 溫泉浴을 시행한 병의 원인 가운데 피부질환이 많았었고, 또 이후 1984년에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의 동자상 복장유물 가운데 世祖의 것으로 판정된 피묻은 속적삼이 발견되었는데, 피고름의 흔적으로 당시 世祖가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世祖 전후의 임금들-短命한 端宗이나 睿宗을 제외한-즉, 世宗이나 成宗이 비교적 자세하며 많은 病症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世祖의 질병기록은 너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世祖 자신이 世祖 9년 12월에 친히 『醫藥論』을 지어 頒布하게 할 정도로 醫學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疾病記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혹시 實錄에서 극심하고 흉한 세조의 피부병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實錄의 기록상에는 世祖와 관련한 극심한 피부병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風濕病’이 바로 皮膚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皮膚病을 치료하기 위해 溫泉浴을 거행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宣祖와 光海君의 疾病

宣祖는 57세에 승하하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宣祖 39년 5월에 溫陽의 溫泉水를 떠와 손가락을 담그기도 했었다. 손가락의 병은 宣祖에게 있어 상당히 오래된 질환으로 생각되는데, 약 10년 전인 宣祖 29년 5월 11일의 기록에도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면 아파서 침을 맞으려 한다. 왼쪽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므로 침을 맞아 脈을 트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에 오른쪽 손과 무릎도 역시 아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歷節風(류마티즘성 관절염)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宣祖가 溫泉水를 떠와 손가락을 담근 원인은 歷節風을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宣祖는 耳鳴症, 頭痛, 偏虛症, 氣流注症 등의 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光海君은 67세에 사망하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왕세자 시절인 宣祖 26년 윤11월에 溫陽溫泉에 혼자 거동하였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순히 질병이 있고 아팠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당시에 光海君이 어떤 질병을 앓아서 溫泉浴을 하였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光海君은 본디부터 病弱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고, 同年 9월과 10월의 기록에 목에 담종과 여러 증세가 있다고 하였으며, 心恙症이 있어 狂病까지 운운하고 있고, 아울러 咽喉症을 호소하고 있다. 宣祖 28년 4월과 9월의 기록에는 痢疾, 脾胃損傷으로 인한 腹痛, 心熱症과 痰症을 호소하고 있으며, 宣祖 35년 8월에 痰熱症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光海君의 溫泉浴과 관련한 질병은 주로 咽喉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慢性扁桃腺炎이나 慢性咽頭炎, 또는 甲狀腺질환 등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心恙症(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함)과 不眠症 등을 아울러 호소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喉痺질환과 怔忡증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光海君은 아마도 現代醫學적으로 甲狀腺機能亢進症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7. 顯宗의 疾病

顯宗은 34세에 승하하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25세부터 29세까지 5년에 걸쳐 다섯 번 溫陽溫泉에 거동하여 溫泉浴을 하였다. 顯宗에 관한 질병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眼疾과 濕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顯宗은 이러한 眼疾과 濕瘡을 치료하기 위해 溫泉浴을 거행하였다. 顯宗에 대한 眼疾기록에는 즉위년(21세)에 ‘偷針瘡(눈다래끼)’을 앓았다고 나오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眼疾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눈다래끼를 顯宗의 고질적인 眼疾로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이후에 眼疾에 관한 증상을 표현하여 “눈동자에 핏발이 서고 침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顯宗의 眼疾은 現代醫學的으로 結膜炎이나 葡萄膜炎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葡萄膜炎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된다. 濕瘡은 종기나 부스럼을 말하는 것으로 眼疾과 함께 顯宗에게 고질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 肅宗의 疾病

肅宗은 60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는데, 54세인 재위 40년 봄에 飽滿症(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됨), 浮氣, 脹症을 호소하고 있다. 60세로 승하할 무렵 다시 腹部가 팽창하여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腹水증상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고질적으로 肝이나 腎膀胱계통에 이상이 있어 水液代謝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7세인 재위 43년에 溫陽에 溫泉浴을 거행하였는데, 당시에 호소하고 있는 주 증상은 눈이 어둡고 어지러운 眼疾 증세이다.

9. 英祖와 思悼世子の 溫泉浴

英祖는 83세로 승하하여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장수하였다. 英祖는 皮膚가려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溫陽溫泉의 溫泉水를 길어다 목욕하기도 하였고, 57세인 英祖 26년 9월에는 溫陽溫泉에 직접 행차하여 溫泉浴을 하기도 하였다.

思悼世子는 28세에 비명에 갔는데, 26세 때에 다리에 생긴 濕瘡(종기,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 溫陽에서 약 1주일 정도 머무르며 溫泉浴을 하였다. 목욕 후에 濕瘡에 약간의 차도가 있다고 하였으나 還宮 이후에도 藥房에서 진찰을 한 기록이 계속해서 보인다. 아마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思悼世子의 濕瘡이 주로 다리에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다리나 발목에 생기는 濕毒瘡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濕毒瘡은 일종의 濕疹으로 가려움증이 수반되기도 하면서 피부가 붉게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면서 뒤에 딱지가 형성되고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

주로 감염성이며 재발을 잘 하는데, 만성에 들어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두꺼워진다.

黨爭의 와중에 老論에 속한 대신들이나 英祖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무고하였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英祖는 수시로 그를 불러 꾸짖고 나무랐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 증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신의 후궁인 숙빈 임씨나 궁녀를 죽이기도 하였고 女僧을 입궁시키고 몰래 궁을 빠져나와 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父王 英祖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을 實錄에서는 발작증세나 狂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종의 躁鬱症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朝鮮時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관련된 질환을 찾아보면 대부분 風病, 眼疾, 皮膚病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風病은 감기증세부터 中風疾患, 그리고 근육통이나 관절통도 모두 風病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확실한 병증을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太宗이나 宣祖는 歷節風(류마티즘성 관절염)을 앓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眼疾은 世宗의 경우 糖尿病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합병증세로 생각되며, 顯宗의 경우에는 結膜炎이나 葡萄膜炎 등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皮膚病에 속하는 것은 濕瘡 즉, 종기나 부스럼이 있기도 하였고, 단순히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종기를 포함한 피부병은 역대 임금들의 고질적인 병으로 많이 나오는데, 文宗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되어 나온다. 이러한 피부병은 한의학에서 ‘癰腫’, ‘癰疽’, ‘濕瘡’ 등으로 표현되어 나오는데, 韓醫學書 가운데에도 많은 부분 이러한 종기나 부스럼을 다루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피부 질환에 관련한 전문의서(예를 들어 『治腫指南』)가 별도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였다. 이로 보건대 종기나 부스럼을 포함한 피부질환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았었고 치료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V. 溫泉浴의 效果

溫泉浴의 효과를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溫泉浴은 新陳代謝를 증가시키고 血管擴張으로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며 血壓低下 효과도 일어난다. 아울러 深部組織의 혈액이 혈관확장으로 말초에 유입됨으로써 한의학적으로 鬱血을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피부에서는 汗腺을 자극하여 發汗을 촉진시키는데, 이에 따라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 또, 피로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켜 鎮痛, 鎮靜

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류마티즘, 신경통, 골수염, 신방광질환, 대사성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溫泉浴의 효과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보면,

“여러 가지 風症으로 筋骨이 攣縮되는 것과 피부가 頑痺되는 것, 手足을 잘 쓰지 못하는 병증, 문둥병, 음, 버짐이 있을 때 溫泉에 목욕한다. 목욕하고 난 후에는 虛해지고 피곤하므로 약이나 음식으로 보해야 한다.(本草)

溫泉水는 성질이 뜨겁고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음이나 문둥병이나 매독이 있을 때에는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들어가서 목욕해야 하는데, 땀이 폭 나면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10일 정도 목욕하면 모든 (피부가 붉고 허는) 瘡病이 치료가 된다.(食物)

溫泉의 밑에는 硫黃이 있기 때문에 물이 뜨겁다. 硫黃은 여러 가지 瘡病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硫黃이 들어있는 溫泉水도 마찬가지로이다. 溫泉水에는 유황냄새가 나기 때문에 風症이나 冷症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本草)”¹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東醫寶鑑』에서도 溫泉浴이 風病과 皮膚病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임금들이 溫泉浴을 한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世宗의 경우 溫泉浴 이후에 상당한 치료효과를 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45세 때에 溫陽에서 두 번째 목욕하고 난 후, 자신의 眼疾이 많은 차도를 보이자 당시의 溫水縣을 溫陽郡으로 승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금의 溫陽이란 지명이 바로 世宗의 眼疾과 관련된 溫泉浴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세종 자신이 “溫泉浴을 3번이나 하여도 별로 신통한 효험이 없어서 溫泉을 서울로 옮겨와도 다시 목욕하지 않겠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世宗에 있어 溫泉浴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시적인 효과로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思悼世子의 경우에도 濕瘡를 치료하기 위해 溫陽溫泉에 목욕하였으나, 많은 차도를 보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환궁 이후에도 계속해서 藥房의 진찰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완치가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밖의 溫泉浴을 거행한 임금들의 질병기록을 살펴보아도 溫泉浴이 疾病을 완치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溫泉浴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많이들 시행했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잠시 증세가 호전되거

11) “溫泉(더운샘물) 主諸風筋骨攣縮 及皮膚頑痺 手足不遂 大風疥癬者入浴 浴乾當虛憊 可與藥食 補養(本草). 溫泉 性熱有毒 切不可飲 患疥癩 及楊梅瘡者 飽食入池 久浴得汗出乃止 旬日諸瘡皆愈(食物). 下有硫黃 卽令水熱 硫黃主諸瘡病 水亦宜然 水有硫黃臭 故愈風冷爲上(本草).”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 680.)

나 차도가 있다고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완치되었다고 기록되어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은 내용이 나온다. 이로 보건대 溫泉浴은 근본적 치료법이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일시적 차도를 보인 것은 물론 溫泉浴 자체의 효과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임금들이 政務를 벗어나서 휴식하면서 잘 調養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V. 맺는말

朝鮮時代 역대 임금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溫泉浴을 거행한 것이다. 太祖, 定宗, 太宗, 世宗, 世祖, 顯宗, 肅宗, 英祖 등은 在位時나 退位時에 溫泉浴을 하였으며, 光海君과 思悼世子 등은 왕세자 시절에 혼자서 溫泉浴을 하였고, 文宗은 왕세자 시절에 父王인 世宗을 모시고 溫泉行을 하였다.

역대 임금들의 溫泉地로 이용되었던 곳은 平山溫泉, 伊川溫泉, 溫陽溫泉 등이 된다. 朝鮮時代 初期의 임금들, 즉 太祖, 定宗, 太宗 등은 주로 黃海道 平山溫泉을 이용하였으며, 世宗 이후의 임금들은 거의가 溫陽溫泉을 이용하여 溫泉浴을 하고 있다.

역대의 임금들이 溫陽溫泉에 머물면서 溫泉浴을 한 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되는데, 溫泉行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질병치료가 되겠지만 이외에 民政을 視察한다든지, 賦役이나 稅金을 감면해준다든지, 科擧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백성을 慰撫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溫泉浴의 원인이 되었던 임금들의 질병은 주로 風疾, 皮膚病, 眼疾로 나타난다. 때로는 많은 차도를 보여 世宗의 경우 溫水縣을 溫陽郡으로 승격해 주기도 하였으나 溫泉浴은 결국 근본적 치료법은 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實錄廳撰,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79.
2. 金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3.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